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2.7.04(월) ~ 2022.7.08(금)

제공일시 2022 07 15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2.7.04(월) ~ 2022.7.08(금)

제공일시 2022 07 15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美 대법, 환경보호청 제동 관련... SEC가 타깃인가?

- 미국 대법원이 환경보호청(EPA)의 온실가스 배출규제 권한을 제한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음
- 대법원은 EPA가 청정대기법상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을 내놓아 바이든 정부의 지구온난화 대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 존 케리 미국 정부 기후특사는 AP 통신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내 기후대응 노력이 차질을 빚고, 그 때문에 화석연료를 줄이기로 한 다른 국가와의 약속 이행도 느려졌다”라고 대법원 결정의 악영향을 지적했음
- 로이터에서는 이번 결정이 모든 규제기관에 기본적으로 적용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SEC 기후 공시 의무화 공개추진 중단 가능성도 언급했음

(뉴시스, 2022.07.01) 임종명 기자
https://newsis.com/view/?nid=20220701_20051728&ip=20220701-01

(세계일보, 2022.07.03) 윤지호 기자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7031048040402>

(Reuters, 2022.07.02) Katanga Johnson 기자
<https://www.reuters.com/business/sustainable-business/court-limit-environmental-agency-authority-2022-07-02/>

2. EU, 원전 녹색분류 확정... 그린피스 “매우 유감”

- 유럽의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탄소노미에 포함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EU집행위)의 위임입법안을 가결 처리했음
- 이달 11일까지 상원 격인 EU각료이사회도 위임입법안에 찬성하면, 법안은 발효되고 2023년 1월1일 시행됨
- 그린피스는 “유럽의회가 원자력·천연가스 포함안에 찬성한 것은 우리와 미래 세대의 안전을 최우선시 한다는 유럽연합과 의회의 원칙을 스스로 위배한 것”이라면서, “EU집행위원회에 공식 내부 검토 요청을 제출하고, 충분한 답변을 받지 못하면 유럽 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해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노컷뉴스, 2022.07.06) 장관순 기자
<http://www.nocutnews.com/news/53324>

3. EU의회, 2025년부터 그린 제트연료 사용 의무화

- 유럽연합은 전 세계 배출량의 최대 3%를 차지하는 항공부문 기후 영향을 줄이기 위해 2025년부터 최소 2%의 지속가능항공연료(SAF)를 등유에 혼합해야 하며, 2050년에는 이를 85%까지 확대해야 하는 제안을 지지했음
- SAF도 당초에는 재생폐기물의 바이오기반 연료와 수소기반 합성연료 등을 포함시켰는데, EU가 최종 승인한 규칙은 SAF의 기존 정의를 확대해 폐기물처리 가스에서 생산되는 재생탄소연료, 동물성 지방 등에서 생산되는 바이오연료도 추가했음
- 이는 EU위원회가 당초 제안한 목표치인 2050년 63%보다 더 야심찬 것으로, 추가로 EU회원국 정부와 EU위원회 승인을 받는다면, 세계 최초의 항공유 녹색연료가 의무화 될 전망이다

(Reuters, 2022.07.07) Fabian Bimmer 기자
<https://www.reuters.com/business/energy/efmhfu-timeline-but-mandatory-use-green-jet-fuel-2025-2022-07-07/>

1. 전 세계 플라스틱 퇴출 확산… 한국도 11월 일회용 컵-빨대-우산비닐 금지

- 폐기물 처리 문제가 심각한 세계 각국이 플라스틱 퇴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인도는 이달부터 컵 빨대 수저 같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19종 사용을 금지하는데, 이들 제품의 생산과 수입, 유통 판매까지 모두 금지됨
- 캐나다도 12월부터 일회용 봉투와 수저, 빨대 등의 제조와 수입을 금지하고 내년 12월부터는 판매를 금지함
-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생활용품, 식료품 포장시 플라스틱 사용량을 2032년까지 25% 줄이는 법안을 공표했음
- 우리나라도 11월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범위를 넓혀, 매장 내 사용 금지 품목에 플라스틱 빨대 등을 추가할 예정임

(동아일보, 2022.07.04) 이지윤 기자
<http://news.dongg.com/news/article/20220704-1470581>

2. EU, 리튬 유해물질 분류 검토… 韓 배터리, 공급망 리스크 ‘조마조마’

- EU 유해물질 분류위원회는 유럽화학물질청(ECHA)의 제안에 따라, 리튬을 유해물질 리스트에 포함시킬지 검토에 돌입했고 연말이나 내년초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 이에 대해 국제리튬협회 등 유럽 산업단체는 “에너지 전환 및 전기차 확대 목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음
- 만약 리튬이 유해물질로 분류된다면 리튬 조달이 어려워지고, 가공·포장·저장 비용이 높아질 전망이며, ECHA 제안이 입법화되면 유럽에 진출한 배터리 관련 기업들의 우려가 확대되는 상황임
- 국내 기업 중에서 LG엔솔은 폴란드, SK온과 삼성SDI는 헝가리에 배터리공장을 두고 있고,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케미칼 등도 투자를 공식화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음

(머니투데이, 2022.07.07) 최민경 기자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707-14392843>

3. 구글·메타 잡을 규제법, EU 최종관문 넘었다

- 유럽의회가 5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서비스법과 디지털시장법을 최종 승인하여 유럽 이사회 공식 채택 절차만 남겨 놓고 있는 상태임
- 디지털시장법은 공정하고 개방적인 시장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거대 게이트키퍼들에게 ‘사전’ 경쟁 규칙을 적용하는 법임
- 반면 적용 범위가 좀 더 포괄적인 디지털서비스법은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강력한 관리 책임을 부과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디지털서비스법은 7월, 디지털서비스법은 9월 중 공식 채택될 예정임

(지디넷코리아, 2022.07.06) 김익현 기자
<http://biznet.co.kr/news/2022070608152>

1. WSJ “바이든 이번 주 對中 관세 철회 발표할 것”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이르면 이번 주 내에 대중 관세 인하를 발표할 예정임
-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도 중국과의 경쟁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조치라면서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상당한 가운데,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5일 류허 중국 부총리와 영상 통화를 하면서 관세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음
- 월스트리트저널은 빠르면 이번주 중국산 의류, 학용품 등 소비재에 대한 보복관세 조치 중단, 공급망 안정화, 수입업자들의 관세 면제요청을 수용하는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음

(문화일보, 2022.07.05) 박준우 기자
<http://www.culture.com/bs/1news/1news2022070513125001>

2. 스위스, 투자상품의 기후 포트폴리오 등 기후 스코어 개시

- 스위스의 연방의회는 글로벌 기후목표를 가진 기업에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해 스위스 기후 스코어를 개시한다고 밝혔음
- 기후 스코어는 GFANZ 및 TCFD 프레임워크 등 기존 이니셔티브를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 화석연료 노출, 지구온난화 잠재력, 넷제로 전략과 약속, 기후 책임 등을 반영함
- 연방의회는 자발적으로 은행, 자산운용사, 보험회사 등에 대해 투자 환경 연계를 보다 잘 평가하고 지속 가능성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고객 포트폴리오 및 투자상품에 기후 스코어를 적용할 것을 요구했음

(ESGToday, 2022.07.01) Mark Segal 기자
<http://www.esgtoday.com/news/1news/1news2022070113125001>

3. 금리 인상으로 앞서서 33조 버는 유럽은행들… ECB, 규제 마련 ‘고심’ / ECB, 녹색기업 유리하도록 개혁

- 유럽중앙은행(ECB)이 경기 부양 차원의 대출 활성화를 위해 시행한 저리대출 제도가 금리 인상에 따라 일반 은행에 240억 유로(약 32조5000억원)의 막대한 수익을 안겨줄 것으로 관측됨
- 이달 말 금리 인상을 예고한 ECB의 추가 수익 규모는 최소 40억 유로(약 5조4177억원)에서 최대 240억 유로로 예측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ECB 이사회는 일반 은행의 추가 수익을 억제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힘
- 이에 더해 ECB는 3440억유로의 기업 채권포트폴리오를 단계적으로 개혁해 녹색기업에 유리하도록 할 계획을 발표했음

(뉴스시스, 2022.07.04) 이종희 기자
https://newsis.com/view/131452222704_061981224x0-01014x0-01016

(Reuters, 2022.07.07) Wolfgang Rattay 기자
<https://www.reuters.com/business/sustainable-business/ecb-reinforces-stance-on-profitable-banking-2022-07-04/>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기간 : 2022.7.04(월) ~ 2022.7.08(금)

제공일시 2022 07 15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유럽중앙은행, 첫 번째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 채권까지 친환경으로 운영할 예정... 금융기관 기후 공시 더 높여야

- 유럽중앙은행이 자체 조사 결과 은행이 기후 위험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음
- EU의 첫 번째 기후 위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대부분의 유로존 은행은 스트레스 테스트 프레임워크 및 내부 모델에 기후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대부분의 은행에는 강력한 기후 위험 스트레스 테스트 프레임워크가 없고 관련 데이터가 부족함
- ECB의 안드레아 엔리아(Andrea Enria) 감독위원회 의장은 성명을 통해 "유로 지역 은행들은 기후 위험을 측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시급히 강화하고 현재의 데이터 격차를 좁히고 이미 해당 부문에 존재하는 모범 사례를 채택해야 한다"라고 말함
- 남부 유럽의 이상 기후, 에너지 가격 상승,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 이후 러시아로부터 가스 공급이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 의견이 제기됨. 구체적으로 탄소배출권 가격 급등에 따른 3년, 30년 전환 시나리오, 1년에 걸친 대형 홍수 및 극심한 가뭄·폭염의 물리적 위험 등의 시나리오를 놓고 연구한 것으로 알려짐
- 이번에 진행된 테스트에는 총 104개 은행이 참여했으며, 자체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기능, 탄소 배출 부문에 대한 의존도, 여러 시간대에 걸쳐 다양한 시나리오 등 총 3가지 종류의 범주에 대한 테스트가 진행됨
- 첫 번째 모듈의 결과에 따르면 은행의 약 60%가 신용위험 모델에 이후 위험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대출을 제공할 때 기후 위험을 변수로 고려하는 은행은 20%에 불과함
- 세 번째 모듈에서는 소규모 은행에 대한 비례성을 보장하기 위해 41개의 은행으로 결과를 제한함. 그 결과 대출 기관은 다양한 전환 시나리오에서 기상이변으로 인한 손실을 예상함. 보고서는 41개 직접 감독 은행의 신용 및 시장 손실이 올해 총 700억 유로(한화 약 92조 4700억 원)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함
- 보고서는 대부분의 은행이 스트레스 테스트 프레임워크의 거버넌스 구조, 데이터 가용성 및 모델링 기술을 개선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결론지음
- 한편 유럽중앙은행(이하 ECB)이 3860억유로(약 523조원)의 회사채 포트폴리오를 보다 친환경으로 운영하겠다고 7일(현지시간) 선언함. ECB는 3860억 유로의 회사채 포트폴리오에서 기후실적이 나쁜 기업들과는 결별하고, 2015년 파리협약에 따라 점점 회사채를 탈탄소화시킬 계획임
- ECB는 은행이 담보로 갖고 있는 채권 중에서 탄소발자국이 높은 채권은 보유를 제한할 예정임. ECB는 3가지 지표에서 더 나은 성과를 내는 기업의 회사채 비율을 늘리겠다고 밝혔는데, 3가지 지표는 탄소 감축 목표, 배출량 공개, 실제 배출량 등을 기준으로 평가됨
- ECB는 2023년 1분기부터 기후 관련 정보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번 조치는 올해 10월부터 적용됨. ECB의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 총재는 "우리는 우리의 통화정책 운영에 기후변화를 통합하기 위해 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며, 지구 온난화를 1.5도로 제한하는 파리협정에 ECB의 활동을 맞추기 위해 "더 많은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임

(임팩트온, 2022.07.05) 홍명표 기자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s/item?doop=461>

(임팩트온, 2022.07.12.) 유미지 기자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s/item?doop=462>